

# 새만금도로공사 도내업체 참여 절실

### 남북2축 도로공사 도내업체 참여율 고작 17%... 30%이상 공동참여 보장해야

9,000억원대의 새만금 남북 2축 도로 공사가 입찰공고되면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입찰 공고된 새만금 남북 2축 도로 1단계 공사에 도내 건설업체가 30%이상 공동참여가 필수 보장돼야 한다고 정치권과 행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지난 2014년 2.7%에 이어 지난해에는 1.3%가 감소하면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건설공사 물량인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회에서는 새만금 남북 2축 도로 입찰시 전북지역 업체 참여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으나, 국가계약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도내 건설사들과 30%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공고됐다.

대한건설협회 정대영 전북도회장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변경)과 국가예산 확보, 원활한

사업추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북도와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며, "전북지역내에서 이뤄지는 대형사업으로서 새만금 특별법에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지난해까지 전북 지역업체 참여는 평균 17%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더 이상 '외지업체 만의 잔치'는 안된다는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 동안 도회에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 건의 후 2회에 걸친 1군 호남권지사장과 간담회를 통해 전북지역업체가 30%이상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에 적극건의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고 전북도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대영 회장은 "최근 입찰공고한 새만금 남북 2축 도로 건설공사 1단계가 발주돼 도내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사 수주난 해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특히 도내 업체와 30%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한 것은 대기업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도내 업체는 지역 민원해결 등 공동협력력을 통한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본공사 참여가 예상되는 대형건설사와 전북도, 새만금 개발청에 전북지역업체가 30%이상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7일 발송하는 등 협회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과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는 부안군 하서면과 군산시 새만금 산업용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 26.7km, 폭 27~34m, 교량 13개소에 총 사업비 9,19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사업규모와 입찰방식(단기)을 감안할 때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3조원의 새만금 방조제 및 신항만공사에 도내 업체가 원도급으로 단 1원도 참여하지 못한 실정이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에 중심으로 참여된 전북지역 건설산업의 활력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한은 전북, 주천초 학생 등 초청 견학 행사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7일 진안군 주천면 소재 주천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초청해 견학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등 경제교육, 전북본부 영업장 및 시설 견학, '화폐속의 패션' 전시관 관람, 전통문화체험(인절미 만

들기), 남부시장 장보기 체험학습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도내 학생들의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나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에도 초청 견학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KTX 서대전역 경유 반발 거세

### 도내 상공인들,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건의서 전달

국토부가 KTX 전라선의 서대전역 경유를 추진하면서 저속철이 필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도내 상공인들

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 용산에서 전주까지 35분이 더 소요되는 것은 물론 사실상 KTX 증편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다음달 8일부터 증편 운항예정인 KTX 전라선의 서대전역 경유에 대해 서대전역 경유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 요원에 송부했다.

건의서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은 그동안 전북도민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라선 KTX 일일 10회 이상 증편 요구에 대해 지난 10월 28일 철도선로배분심의회 4회 증편 결정은 아쉽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준데 대해 다소나마 위안을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편된 4편중에서 2편이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대전에서 익산역까지는 고속철 전용선로가 깔려 있지 않아 기존의 선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승객들은 고속철 요금을 내고 저속철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인재용 기자

또한 서대전을 경유할 경우 용산~전주발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 36분에서 35분 늦은 2시간 11분이 소요돼 사실상 KTX 증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KTX 속도 역시 시속 122~125km로 기존보다 시속 40km가량 더 떨어져 저속철과 다름없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이러한 생색내기식 결정에 대해 그동안 열차부족으로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KTX 전라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서대전 경유 방침을 철회하여 증편된 4편 모두가 현행과 같이(용산~오송~익산~전주~여수) 운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지난 2005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시에도 호남권 지역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수도권과 호남을 최단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충남 천안 대신에 충북 오송을 분기역으로 결정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서러운 상황에서, 서대전 경유까지 추가한 것은 지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서대전역 경유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협-도내 보호관찰소 4개소 재능기부 봉사활동 '큰 호응'

전북농협과 도내 보호관찰소 4개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자의 재능기부봉사활동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대상자 특기재능봉사는 사회봉사대상자 중 특기재능 보유자를 활용해 농촌마을에 재능을 기부해 농촌에 활력을 지원하는 농협과 법무부의 농촌인력지원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농협과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자의 농촌일손돕기가 주를 이루었으나 재능기부를 통해 농촌마을과 지속적인 교류와 공감을 형성하고 사회봉사자의 사회참여를 통해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농협과 보호관찰소의 재능기부봉사활동은 농협정읍시지부와 정읍보호관찰소가 지난 5월과 7월 2회에 걸쳐 사회봉사자 13명이 정읍관내 농가 3곳을 방문해 도배, 장판교체, 농가수리와 농촌마을의 노후 정자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9월과 10월에는 2주간에 걸쳐 농협남원시지부와 남원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대상 재능기부자 20여명과 함께 남원관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마을담장 도색 및 벽화그리기 재능기부를 실시해 마을을 생동감있게 변화시켰다. 전북농협과 도내 보호관찰소는 올해 연말까지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연말까지 보호관찰소별로 특기재능봉사를 계속 실시해 취약농가의 실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11월 제철 농산물로 '배'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월의 제철 농산물로 배를 선정했다.

배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루테올린 성분은 기관지 염증을 진정시켜주어 감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지친 호흡기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배를 섭취하면 이를 닦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100g당 0.64g 들어있는 다량의 식세포로 인해 배를 먹을 때 부드러운 알갱이가 씹히는데, 이 알갱이가 이 사이의 프라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좋은 배를 고르려면 꼭지와 점무늬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꼭지 부분이 깊이 들어갈수록 씨방이 작아서 먹기 쉽고, 점무늬가 크고 간격이 좁지 않은 것이 맛도 좋다. 배를 보관해 둘 때는 신문지 등에 싸서 선선한 곳(0~5℃)에 두면 약 일주일 간 저장 가능하다.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바람이 든 것처럼 푸석해지므로 유의해야 하며, 사과와 함께 보관할 경우 배가 빨리 부패할 수 있으므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인재용 기자

## '김영란법' 시행 한달 평가 엇갈려

### 부정부패 고리 끊은 반면 소상공인 등 내수위축 우려 여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지 한달이 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부정, 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낡은 접대 문화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놓고 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위법 여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의가 폭주하면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해석 등 각

종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 TF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아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저녁 약속이 크게 줄어들었고 '너치케이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뿌리치기 어려웠던 청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된 점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공

직사회 등을 중심으로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전북도청 일대의 식당 상권은 얼어붙었다.

이 때문에 식당은 3만원 이내의 '김영란 세트'를 앞다퉈 내놓기도 했다.

축제의 계절인 가을이 됐지만 꽃 주머니 대폭 줄어 화훼농가는 울상을 지었고, 골프장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전주시내에서 화일을 운영하는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60% 이상 떨어졌고 일주일째 이를 정도는 손님이 없어 공진다"며 "장사를 접고 전업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A씨는 "경조사 때 화환을 주고받는 것도 줄었을뿐더러 문제가 될 일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꽃을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졌다고 밖에 안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재용 기자

## 농진청 6차산업 가공상품 경진대회

농촌진흥청은 8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생력농촌! 6차산업 가공상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기관의 연구 및 사업 지원을 받은 6차산업 가공상품 경영체와 5

년 미만의 자생적 경영체 중에서 각 도농업기술원의 예선을 통과한 18경

영체가 참가해 제품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한 경영체들은 온-오프라인 전

문MD 및 유통·마케팅 관련 대학교 수진 20명이 사업 계획부터 상품성, 시장성, 디자인 독창성, 마케팅 전략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성이 입증된 경영체의 가공상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농촌진흥청장상 등 총 10점을 대상으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인재용 기자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주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